

# 敦煌本 <詠九九詩>와 <九九消寒圖> 研究

朴世旭\*

<目次>

- |             |                      |
|-------------|----------------------|
| I. 들어가며     | 2. 서안의 <九九消寒圖>       |
| II. 들어가서    | 3. 돈황 P.4017의 <詠九九詩> |
| 1. 九九消寒의 方法 | III. 나가면서            |

## I. 들어가며

중국 민간 年畫중에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九九消寒圖>를 든다. 이것은 섬서성(陝西省) 서안시에 있는 비림(碑林) 1)에서 발견된 비석의 탁본을 말한다. 새겨진 발문에 따르면, 명황실의 秦國에 봉해진 “靑陽子”라는 號를 가진 사람에 의해 1488년에 쓰여 졌다. 이 비석의 탁본은 기본적으로 아홉 개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순서대로 그림과 칠언 절구시를 보여준다. 그 가운데에는 화병에 꽂힌 꽃가지 하나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그 하단에는 跋文이 새겨져있다. 그 기본적인 형식은 동지에서 9일을 “一九”로 하여 “九九” 81일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이 온다는 것이다. “消寒”이란 “추위를 없앤다”

\* 경북대 중어중문학과 강사

1) 비림(碑林) : 섬서성(陝西省) 서안시에 소재. 송 철종(哲宗) 원우(元祐) 3년(1090)에 조성. 원래 개성석경[開成石經: 유교경전을 돌에 새기는 작업을 당 문종(文宗) 태화(太和) 7년(833)에 시작하여 개성(開成) 2년(837)에 완성되었고 227개 돌로 구성]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

는 뜻으로, 九九(81일)동안 무언가를 하면 추위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1901년 Grube씨는 북경의 풍습에 관한 연구에서 이미 이러한 풍속에 대한 언급<sup>2)</sup>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민간 풍습은 서안과 북경일대에서 15세기 말에는 상당히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풍습의 내원을 찾아 밝혀내는 것은 그리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무엇보다도 宋代 이전에는 이렇게 동지부터 9일씩 나누어 기후를 점치는 방법이 없었다고 알려져 있다. 비림에서 알려지게 된 이 풍습은 문서상에서 빨라도 10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고작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습이 어떻게 어디에서 생겨난 것인가에 대한 연구에 앞서, 이러한 “구구”로 셈하는 방법은 문서상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한편 돈황에서 발견된 뿔리오 4017 문서<sup>3)</sup>(이하 P.로 표기)에는 <詠九九詩一首>라고 제목이 달린 아홉 수(首)의 칠언절구의 시(노래)들을 볼 수 있는데, 비림의 칠언 절구와 내용과 형식면에서 상당히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풍습에 관한 문헌상의 흔적을 찾아보고 비림에서의 것과 돈황의 사본에서 보이는 절구형식의 시에 대한 교정과 역주를 통하여 이러한 풍습의 내원이라는 근본 문제에 작은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다.

<九九消寒圖>에 대해서는 프랑스 저명한 동양학자 샤반느(Chavannes)가 1904년 서안 비림의 탁본을 연구하였고, 돈황본 <詠九九詩>는 饒宗頤가 《敦煌曲》을 연구하면서 뿔리오 문서 4017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이 “九九”에 관한 두 문건은 매우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샤반느는 돈황문서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고 饒宗頤 또한 서안의 구구소환도를 모르고 있었다. 그러므로 본고는 샤반느가 연구한 것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饒宗頤가 간략히 원문을 읽어 내는데 그친 자료를 다시 면밀히

2) Wilhelm Grube, *Zur Pekinger Volkskunde*, Berlin: 1901, pp.87-88.

3) 13페이지의 접이식 소책자, 간혹 보존의 흔적(비단)이 보이며, 여러사람의 손에 의해 기록. 14.6에서 14.9\*10.7에서 11. 두께, 0.2, [본문은 62-80행에 실림].

읽고 역주하여 두 옛 문건의 관련성을 찾아 본다.

## II. 들어가서

### 1. 九九消寒의 方法

“九九消寒”의 설명은 남아있는 기록 중에서 劉侗(1594? ~1637?) 과 于奕正的 《帝京景物略》<sup>4)</sup>이 제일 상세하다. 권2에 따르면 :

“날이 동지가 되면 빈 매화나무 한 가지를 그려 꽃잎(봉우리) 81 개를 만든다. 하루에 한 꽃잎을 색칠하여 꽃잎이 다되면 구구도가 나온다. 즉, 봄이 깊어진다. 이를 일컬어 ‘九九消寒圖’라 한다. 곧장 아홉 송이를 동그라미치고, 그 아홉 동그라미들을 모아 인쇄하여 때 맞추어 내다 파는데, ‘아홉 구’의 노래를 침부한다. [그 노래는] 춥고 따스함의 징후를 서술한다. 일구이구는 서로 부르며 손을 꺼내지 않는다. 삼구이십칠에는 율타리엔 피리를 부는 듯하고, 사구사십육에는 밤에 자는 것이 노숙하는 것처럼 한다. 오구사십오에는 집집마다 소금호랑이[鹽虎<sup>5)</sup>]를 쌓아 둔다. 육구오십사에는 입에는 따뜻한 기운이 나온다. 칠구육십삼에는 행인들의 입은 옷이 얇다. 팔구칠십이에는 고양이와 개는 음지를 찾는다. 구구팔십일에는 궁핍한 사내 고생이 다하니 그제야 다리를 펴고 잠을 자고, 모기, 벌레, 람뿔, 벼룩 등이 나온다”<sup>6)</sup>.

- 4) 8권 유동은 호북사람이고 우혁정은 북경사람인데 이들은 북경에서 만났고 우씨는 자료를 모았고 유씨가 글을 써 1635년에 완성하여 남경에서 간행됨
- 5) 鹽虎란 호랑이 모양의 소금을 말하는 것으로 《左傳》, 僖公 30년에 보인다. 李商隱(813~856)은 <殘雪>이란 시에서 “刻獸摧鹽虎 爲山倒玉人”(QTS, 8/9/541, 1380b)라 하며 “염호”를 눈에 비유하고 있다. 이로서 여기에서 사용된 “염호”란 표현은 내린 눈 무더기가 날이 따뜻해져 녹은 모양에 비유한 것으로 생각된다.
- 6) 日冬至, 畫素梅一枝 爲瓣八十有一, 日染一瓣 瓣盡而九九出 則春深矣 曰九九消寒圖. 有直作圈九義, 叢九圈者, 刻而市之, 附以九九之歌 述其寒燠之候 歌曰 一九二九, 相喚不出手. 三九二十七, 籬頭吹鷓鴣. 四九三十六, 夜眠如露宿. 五九四十五, 家家堆鹽虎. 六九五十四, 口中呌暖氣. 七九六十三, 行人把衣單. 八九七

K C I

---

十二, 猫狗尋陰地, 九九八十一, 窮漢受罪畢, 纔要伸脚睡, 蚊蟲蠟蚤出

빈 매화가지에 꽃 봉우리 81개를 속이 비게 그려놓고 하루에 하나씩 색칠해 가는 방식과는 다른 방법이 徐珂, 《清稗類鈔》<sup>7)</sup>, 時令類에 보인다.

“宣宗<sup>8)</sup>御製詞에는 ‘정자 앞에 드리운 버드나무 조심스레 춘풍을 기다리네’ 라는 두 구가 있는데, 각 구는 9언으로 되어있고 각 글자는 9획으로 되어있다. 나중에 그 글자들을 雙鉤(가운데를 텅 비게 하고 윤곽만 그려 놓는 것)쳐 두었다가 표구하여 폭으로 만든다. 이를 ‘九九消寒圖라 하고 그 끄트머리에 ‘管城<sup>9)</sup>春色’이라는 네 글자로 제(題)하였다. 南書房<sup>10)</sup>翰林은 ‘陰晴<sup>11)</sup>風雪’로 그것을 注하였는데, 동지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루에 한 획씩 채우면 무릇 81일이면 일이 끝난다.<sup>12)</sup>”고 하는데, 이와 같이 구구소한도는 매화한가지나 또는 대련을 써서 한 획씩 매일 써가는 방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우리는 또 다른 문건 속에서 구구소한에 관한 언급들을 찾아 볼 수 있다.

楊允孚, 《灤京雜詠》<sup>13)</sup> :

試數窓間九九圖,	시험 삼아 창문에 九九圖를 세어보니,
餘寒消盡煖回初.	남은 寒氣는 사라지고 溫氣가 막 돌아오네.
梅花點遍無餘白,	매화의 짐은 모두 여백이 없어지고,

- 7) 《清稗類鈔》: 徐珂(1869~1928)가 撰한 48권으로 된 일종의 類書로 《宋稗類鈔》를 모방하여 지은 책. 대체로 1616~1911까지의 일을 다방면에서 인용 기록하고 있다.
- 8) 명대 1426~1434까지 집정한 朱瞻基를 말하는 것 같다.
- 9) 管城이란 管城子를 말하는데 韓愈의 毛穎傳에 붓을 이와 같이 칭하였다. 이로 부터 管城자는 붓의 별칭으로 통용되었다.
- 10) 북경의 고궁 乾清宮 서남쪽 구석에 위치하고 있는데 본디 乾隆帝가 어린 시절 책을 읽던 곳이라고 한다. 나중에는 翰林이나 한림출신의 관료를 선발하여 당직하도록 하였다. 황제의 뜻을 받들어 詔諭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한 동안은 정령을 발표하는 곳이기도 했다.
- 11) 음청이란 양을 지향하고 음을 등진다는 뜻이다.
- 12) 宣宗御製詞, 有“亭前垂柳, 珍重待春風”二句, 句各九言, 言各九畫, 其後雙鉤之, 裝潢成幅, 曰九九消寒圖, 題“管城春色”四字於其端. 南書房翰林日以“陰晴風雪”注之, 自冬至始, 日填一畫, 凡八十一日而畢事.
- 13) 楊允孚, 원나라(1271~1368) 吉水사람, 字는 和吉 문연각사고전서 1219-623b

看到今朝是杏株      아침에 보니 살구열매로다.

그리고 이 시의 주에 따르면, “매화 한 가지를 창문에 매달아 놓고 佳人이 아침에 화장을 하면서 매일 연지로 한 송이를 그려 81송이가 완성되면 살구꽃으로 변해지는 데 즉, 溫氣가 돌아온다.”<sup>14)</sup>

또한 劉若愚(1585~?), 《酌中志》, 권20(9b)에 따르면

“십일월 달에는 백관들은 대대로 귀마개를 한다. 궁내 내신들 모두 양생의 대례복과 망의를 입었다. 동지가 되면 궁실에 많은 그림이 양을 끄는 아이 그림이다. 사례감(궁중의 禮儀를 관장하는 관직)이 인쇄한 ‘구구소한도’를 붙여둔다. 각 九에는 절구가 들어 있는데 ‘일구 막 추위가 시작하니 겨울이라’고 시작하여 ‘일월성진이 머무르지 않고 바쁘다’에서 그친다. 모두 근거 없는 속담의 일종이다. 文臣이 명을 받아 지은 것이 아니다. 또한 천자가 지은 것도 아니다. 어떻게 전해져 오래 지속되었는지 바뀌었는지 모른다. 근래 많이 바뀌어 신식 시구의 그림이 두세 가지 되나, 여전히 널리 퍼지지는 않았다.”<sup>15)</sup>

마지막으로 《日下舊聞考》<sup>16)</sup>에서도 이러한 언급이 보이지만, 위에서 본 《帝京景物略》의 설명과 주(注)로 楊允孚, 《灤京雜詠》의 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이상의 문건에서 우리는 구구소한도가 그 來源이 어디인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에 대한 자료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당히 국한된 지역

14) 冬至後, 貼梅花一枝於窓間, 佳人曉粧時, 以臘脂日圖一圈, 八十一圈既足, 變作杏花, 卽煖回矣.

15) 十一月, 是月也, 百官傳帶煖耳. 冬至節宮眷內臣, 皆穿陽生補子蟒衣. 室中多畫綿羊引子畫, 貼司禮監刷印九九消寒圖, 每九詩四句自一九初寒纔是冬起, 至日月星辰不住忙止, 皆瞽詞俚語之類, 非詞臣應制所作, 又非御製, 不知如何相傳耳. 久遵而不改? 近年多易以新式詩句之圖二三種, 傳尙未廣.

16) 《日下舊聞考》: 于敏中(1714~1780)이 주이존(朱彝尊)의 《日下舊聞》을 따라 범위를 넓혀 고찰한 책으로 1774년 완성. 4권으로 되어있고, 북경고적출판사에서 1985년에 복인됨.

성을 가지고 있으며 구구소한도에 첨부된 시구도 다양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지에서 시작하는 9일씩 나누어 셈하는 방법이 중국 전역에서 행해졌다고는 지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남방과 북방의 기후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謝肇淛(1567~1624)의 《五雜俎》<sup>17)</sup>를 보면, 冬至뿐만 아니라, 夏至부터 시작하는 ‘구구’ 속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一九二九, 扇子不離手	일구 이구에는 부채는 손을 떠나지 않고,
三九二十七, 氷水啍如蜜	삼구 이십칠에는 얼음물이 꿀처럼 달고,
四九三十六, 汗出如沐浴	사구 삼십육에는 목욕하듯 땀이 나고,
五九四十五, 頭戴秋葉舞	오구 사십오에는 모자 장식은 가을 잎처럼 춤추고,
六九五十四, 乘涼入佛寺	육구 오십사에는 서늘함을 쫓아 절(寺)로 들고,
七九六十三, 床頭尋被單	칠구 육십삼에는 침상에서 홑이불을 찾으려 하고,
八九七十二, 思量蓋夾被	팔구 칠십이에는 겹이불을 덮으려 하고,
九九八十一, 階前鳴促織	구구 팔십일에는 계단 앞에 귀뚜라미가 운다.

또한 동지이후의 구구 속담으로

一九二九, 相逢不出手	일구이구 서로 만나도 손을 꺼내지 않고,
三九二十七, 籬頭吹薺栗	삼구 이십칠 울타리는 피리를 부는 듯하고,
四九三十六, 夜眠如露宿	사구 삼십육 노숙하듯이 밤잠을 자고,
五九四十五, 太陽開門戶	오구 사십오 태양이 문을 열고,
六九五十四, 貧兒爭意氣	육구 오십사 가난한 사람 의기를 다투고,
七九六十三, 布衲擔頭擔 <sup>18)</sup>	칠구 육십삼 꿰맨 옷을 머리에 메거나 지고(?),
八九七十二, 猫狗尋陰地	팔구 육십삼에는 고양이와 개는 음지를 찾아가고,

17) 謝肇淛(1567~1624), 《五雜俎》, 권2, 《續修四庫全書》130, 363 쪽  
 18) 布衲이란 겨울철에 천으로 두툼게 꿰맨 옷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 이 문장은 이해하기 좀 어렵다. 《欽定授時通考》, 권1에는 위 같은 속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 문장만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七九六十三, 布衲兩肩攤”(꿰맨 옷의 양 어깨를 연다)라고 한다. 상당히 전체 문맥에 부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九九八十一, 犁耙一齊出 구구 팔십일에는 쟁기들이 일제히 나온다.<sup>19)</sup>

사조제는 이어서 당시 수도인 북경에, “일구이구에는 서로 만나도 손을 꺼내지 않고, 삼구사구에는 화로에 둘러 앉아 술을 마시며, 오구육구에는 친지를 방문하고 친구를 찾고, 칠구팔구에는 강을 따라 버들을 구경한다.”<sup>20)</sup>라는 속담을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속담은 근래에 생겨난 것으로 宋 이전에는 보이지 않으며 “九”의 셈법이 어떤 연고인지 모른다고 했다. 지금 吳興人들의 말에는 차이가 있으며 반드시 “구”로서 하고 “십”을 말하지 않는 것 역시 웃기는 일이다<sup>21)</sup>고 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구”로 셈하는 방법은 당시 중국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동지와 하지에서 시작하는 구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적인 기후차이에서 온 것으로 남방(광서, 광둥)등지에서는 여름은 무덥지만 겨울엔 혹한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본다. 이러한 풍속은 분명히 구구로 셈하는 같은 원칙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원류는 하나인데 지역의 기후에 따라서 변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지에서 시작하는 것에서 변용하여 하지에서 시작하기도 하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우선 우리는 ‘구구소환’의 풍습의 기록을 남아 있는 문서 속에서 거슬러 올라가보면 당말의 시인으로 알려진 薛能(817?~882?)의 시를 만날 수가 있다.

19) 謝肇淛, 앞의 책, 같은 쪽.

20) 같은 책, 같은 쪽 : “一九二九相逢不出手, 三九四九圍爐飲酒, 五九六九訪親探友, 七九八九沿河看柳.”

21) 같은 책, 363-364쪽 : “此諺起於近代, 宋以前未之聞也 其以九數不知何故 今吳興人言道里遠近, 必以九對而不言十亦可笑也.”

<漢廟祈雨回陽春亭有懷>

<한묘에서 기우하고 양춘정에 돌아와서 느낀 바를 적음>

南榮軒檻接城闌,	남쪽치마와 난간은 성곽에 접해있고,
適罷祈農此訪春,	때맞추어 파종하고 농사 기원하니 바야흐로 봄이네.
九九已從南至盡,	구구는 이미 동지로부터 다했고
芊芊初傍北籬新,	무성하게 막 달라붙은 북쪽의 대나무는 새롭네.
池中水是前秋雨,	못에 물이 가득함은 이전 가을비요,
陌上風驚自古塵,	길에 바람은 놀라도 그대로 옛 먼지라.
欲召羅敷傾一盞,	나부를 불러 한잔술을 기울이려해도
乘閒言語不容人,	틈을 타서 꺼낸 이야기 받아들여지지 않네. <sup>22)</sup>

설능은 汾州, 지금의 山西 汾陽출신이다 위의 시는 시인이 이미 이러한 풍습에 익숙하였음을 말해준다. 그가 언제 이 시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846년 진사에 급제하였고 대부분의 관직생활을 山西지방에서 하고 있다<sup>23)</sup>. 이로써 우리는 위의 근거자료를 통하여 구구의 풍습이 서안과 북경일대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시는 846년 이후로 지어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그가 入蜀하여 절도사를 지낸 시기(864~867)에 지어진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시구에서 우리는 동지부터 시작하는 구구의 셈법이 당말, 9세기 말에도 존재하였음을 명백히 볼 수 있다. 애석하게도 ‘구구’라는 9로 나누는 방식과 그것의 시작이 동지부터라는 것을 전해 줄 뿐 그에 해당하는 그림이나 노래의 존재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동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하지에서 시작하는 것 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지에서 셈하는 것이 먼저 생겨나고 그 다음 하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돈황 문서 P.4017에는 <詠九九詩一首>라고 題名된 시가 보이는데 그 형식이 칠언의 절구로 되어있고 또한 비림의 구구소한도에서 보이

22) QTS, 9/2/559, 1431a.

23) 유성준, “薛能詩 試探”, 중국학연구 제 6집(1991), 1-18 참조.

는 추위에서 따스함으로의 전이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문건에서 보이는 내용들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두 텍스트의 비교하여 그것들의 계통을 찾아내는 것은 본고의 관건이라 하겠다. 그러나 돈황본의 것은 그 서체로 보아 전문적인 서기가 傳寫한 것이 아니라, 사뭇 많은 글자의 오기가 발견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맥이 통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부록 2]. 그렇지만 이러한 초벌 판독으로도 우리는 두 본의 유사한 점을 발견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비림의 탁본을 보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전통에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가운데 화병에 꽂힌 매화가지가 있는 그림 아래 아무런 텍스트가 없는 그림을 보게 되는데, 한 마리의 염소가 등에 화염이 가득한 항아리를 지고 있다. 그 주위에는 세 명의 아이들이 보이는데 한명은 깃발을 어깨에 메고 있고, 또 심벌즈를 치는 한명 그리고 피리를 불고 있는 한명을 볼 수 있다. 아마도 羊지는 陽자와 동음에 의한 가차로 볼 수 있지만 명백한 근거는 없다. 그런데 《작중지》를 보면 “綿羊引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양을 끄는 아이(목동)”을 말하는 것이라면 양기를 돌우는[陽生] 식품으로 양육포를 꼽았던 것<sup>24)</sup>으로 보아 그림에 나타난 동물은 양으로 생각된다. 이 관습은 상당히 오랜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 근거는 唐 이전(9세기 이전)의 문서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시 서북지역 민족의 풍습이 당나라 말기에 전해져 행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탁본의 아래에 위치한 附記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하고 있다: 동지는 음기 앞에 물러났던 양기가 더 커지는 시기이다. 9는 양에 해당하는 수로 제곱이 되는 수 81은 양의 완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81일 뒤에는 양기가 완전히 피어나니 화창한 봄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24) 《酌中志》, 권20(9): 此月糟醃猪蹄尾鶩脆掌羊肉包扁食餛飩以爲陽生之義

2. 서안의 <九九消寒圖>

이 그림에서 보이는 이홉수의 시들은 명황실의 秦國에 봉해진 “靑陽子”라는 사람에 의해 1488년에 쓰인 것으로 탁본의 하단 발문은 말하고 있다. 또한 청나라 全祖望의 《鮎埼亭集》에는 <明宗室靑陽子消寒九九圖跋>라는 발문이 실려 있는데, 우리는 “靑陽子”라는 사람이 명황실의 후손이며 朱誠泳<sup>25)</sup>과도 멀지 않은 친척이며 구구소한도 石本이 존재하는 것과 그리고 매 그림에는 한 首의 시가 붙어있다는 점 그리고 탁본에서 보는 것처럼[부록 1] 이름을 적어두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명나라의 종손 중에 풍아로 저명한 자는 아주 많다. 그중에서 秦王 즉 賓竹의 小鳴集이 가장유명한데, 簡王 朱誠泳이 지는 것이다. 동시대에 청양자라는 자가 있는데 역시 秦國의 자손으로 당시 간왕과 따져보면 서로 멀지 않다. 그에게는 돌에 새긴 <소한구구도>가 있는데, 각 그림에는 각각 한 수의 시가 붙어있는데 안정으로 돌아가 미미한 양기를 보양한다는 뜻이다. 단지 石本에 서명하여 이르기를 ‘청양자’라고만 하고 이름을 적어 놓지 않았다. 朱彝尊(1629~1709)이 명나라 시[明詩綜]를 편집하였는데 또한 이 그림은 보이지 않는다.”(明之宗子, 以風雅著者極多. 秦藩則賓竹小鳴集最著, 簡王誠泳所作也. 同時有靑陽子亦秦府宗支, 計其時當與簡王不相遠. 有石本消寒九九圖, 每圖各系以一詩, 而歸于安靜以養微陽之意. 顧但署曰靑陽子而不列名, 竹垞蒼明詩, 亦未見此圖也.<sup>26)</sup>)

一九

一陽方動應黃鐘,      제일 첫 陽기가 황중<sup>27)</sup>을 따라 동하고,

25) 朱誠泳: 朱元璋의 둘째 아들인 朱棣의 현손. 호를 賓竹道人이라 하였고 秦왕에 봉해졌으며 시에 능하였다고 한다. 시호는 簡으로 문집에는 《經進小鳴集》이 있다.

26) 《四部叢刊·初編·集部·鮎埼亭集》, 권38, <明宗室靑陽子消寒九九圖跋>.

27) 黃鐘이란 음악의 12律중의 제 一律에 해당한다. 《淮南子·天文訓》: “日行一度, 十五日爲一節, 以生二十四之變. 斗指子則冬至, 音比黃鐘”라 하였는데, 高誘注에 “黃鐘, 十一月也. 鐘者, 聚也. 陽氣聚於黃泉之下也”라 한다.

刺綉新添一線工, 수를 놓아 한 선을 공교로이 더한다.  
 剝<sup>28)</sup>盡窮陰寒始散, 剝이 다하고 음기가 마르니 추위가 흩어지고,  
 梅花雪色兩溶溶, 매화와 설색은 모두 넘쳐흐르네.

二九

凜凜寒風刮地來, 림림한 한기는 땅을 가르고 나오고,  
 水花粧就玉樓臺, 물꽃은 옥으로 만든 누대처럼 화장을 했네.  
 銀瓶注酒歌金縷, 은병에 술을 따르고 금루<sup>29)</sup>를 노래하니  
 誰嘆征人尚未回, 누가 원정 간 님 돌아오지 않는다고 탄식하는가?

三九

鵝毛誰剪滿天飛, 철새의 깃털을 누가 잘라 온 하늘에 가득한가?  
 白覆孤村去路微, 온통 백색으로 외딴 마을을 덮어 길이 미미하네.  
 堪<sup>30)</sup>羨袁安堅守志, 부러워라 袁安<sup>31)</sup>이 견고하게 자신의 뜻을 지키며,

- 28) 剝 육십사괘의 하나로 위에 하나의 양효와 아래 5개의 음효로 구성된다 즉 음기가 성하고 양기가 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유하자면 소인이 세를 얻고 군자가 불리해진다는 것이다. 나중에는 시운이 불리해지는 것을 박이라 했다.
- 29) 《당시삼백수》 맨 마지막 시, <金縷衣>를 말한다. 이 시는 杜秋娘이 지었다고 한다. 그녀는 15살에 李椅와 결혼하였는데 그가 807년 난을 일으켜 참수되고 그녀는 현종의 규방으로 들어가 총애를 얻는다. 820년 현종이 죽고 穆宗(821~824)은 그녀를 황태자인 6째 아들의 후견인으로 명한다. 이 어린 왕자가 폐위되고 그녀는 고향으로 보내졌다. 이 시는 그녀가 이의와 결혼하였을 당시 쓴 시로 좋은 시절 젊음을 누릴 것을 권유하는 시이다.  
 勸君莫惜金縷衣, 그대에게 권하노니 금루의를 아끼지 말고  
 勸君惜取少年時, 그대에게 권하노니 젊은 시절을 누려라  
 花開堪折直須折, 꽃이 필 때 꺾을 만하니 반드시 꺾어야 하고  
 莫待無花空折枝, 꽃이 시들고 꺾을 가지가 없을 때를 기다리지 말게나
- 30) 여기에서는 更兼, “더욱더, 더욱이”의 뜻으로 사용.
- 31) 《後漢書》권75에 실린 원안(92년에 죽음) 열전에 따르면 그 당시 십척 이상으로 땅에 눈이 내렸다. 낙양의 군수가 친히 민정을 살피기 위해 나갔다. 그는 각기 집 앞에서 나가기 위해 눈을 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동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원안의 집에 이르자 아무런 길이 없었다. 그는 원안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눈을 쓸게 하였다. 문턱을 넘어가자 누워있는 원안을 보고 왜 나오지 않았냐고 물었다. 이에 원안은 “폭설로 인하여 사람들은 모두 굶주려 있으니 사람들에게 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다른 말로 해석하면 그는 구걸하러 나가지 않았던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할 음식을 구걸할 수 없었

洛陽高臥掩柴扉. 낙양에서 고이하게 누워 사립문을 닫았던 것이.

四九

寒鵲當簷噪晚風, 처마 밑에 겨울 까치는 저녁바람에 지저귀고,  
梅花春信喜先通, 봄의 징표인 매화는 가장 먼저 알람을 즐거워하네.  
柳條變作黃金色, 버드나무 가지는 황금색으로 변하고,  
都屬乾坤造化功, 모두가 하늘과 땅이 만들어 내는 조화의 덕이 로다.

五九

柳搖金色未全舒, 금색으로 흔들리는 버드나무는 아직 다 펴지지 않았지만,  
春信傳來滿分區, 봄소식이 전해져 온 지역에 가득 하네.  
萬國黎民歌舜日, 만국의 백성들 순임금의 시절을 노래하고,  
更聞閭巷起康衢, 바로 마을 거리에는 <강구><sup>32)</sup>의 노래 소리 들리네.

六九

條風吹暖入椒觴, 條風<sup>33)</sup>이 따뜻하게 불어 산초 술잔에 들어오고,

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군수는 그가 덕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고 그의 효심과 무사무욕에 상을 주었다고 한다. 바로 이 고사를 이 두 구는 암시하고 있다. 탁본에서 우리는 누워있는 원안을 볼 수 있다.

32) 강구란 사동팔달의 큰 대로를 말한다. 《列子·仲尼篇》: 堯治天下五十年, 不知天下治歟, 不治歟? ……堯乃微服游於康衢, 聞兒童謠曰:

立我蒸民,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은 백성을 많게 하는 것이니  
莫匪爾極, 당신의 완성과 다른 것이 아니요,  
不識不知, [사물의 성]을 알지도 배워 알지도 못하니,  
順帝之則, 황제의 법도에 따를 따름이네  
楊伯峻, 《列子集釋》, 1985년 2판, 143쪽

33) 《淮南子·陰形訓》: 何謂八風? 東北曰炎風, 東方曰條風, 東南曰景風, 南方曰巨風, 西南曰涼風, 西方曰颶風, 西北曰麗風, 北方曰寒風. 高誘는 震氣 떨어져 나오는 象)가 살아나는 바이다. 일명 明庶風이라한다고 주를 달고 있다. 결국 우리는 동풍이라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宋 周邦彥의 詞, <應天長·寒食>: “條風布暖, 霏霧弄晴, 池塘徧滿春色”(동풍은 두루 따뜻하게 퍼지고, 구름과 안개는 개었다 끼었다하고, 연못에 두루 춘색이 가득하네). 한편 《山海經·南山經》에도 조풍이 보이는데 郭璞은 東北風이라 주한다. 다시 《회남자·천문훈》: “距日冬至四十五日條風至”, 高誘는 艮간괘(물러나지 않는 상)의 바람으로 일명 融이라 한다고 주를 달고 있다.

楚地辛盤<sup>34</sup>適口香, 초나라의 매운 요리 구미에 적합하네.  
彩燕高懸淸晝永, 각색의 제비들 높이 걸려있고 맑은 태양 이어지니,  
餘寒消盡屬春陽, 남은 한기 소진하고 봄의 양기에 속해있구나.

## 七九

金吾不禁夜喧譁<sup>35</sup>, 경찰은 밤에 시끄러운 것도 금하지 않고,  
火樹凌空月有華, 햇불 막대는 허공에 높이 오르고 달은 화려하네.  
盛世太平多景象, 태평성세에 좋은 징후가 많으니,  
萬家歡樂浩無涯, 모든 가구의 기쁨이 한없이 펼쳐지리.

## 八九

積潤纔消景物鮮, 쌓인 습기는 겨우 마르니 경치가 신선하고,  
桃花未吐柳含烟, 복숭아꽃은 아직 피지 않았으나 버드나무 김을 머금었네.  
農人自此知春及, 이때부터 농부는 봄이 왔음을 알고,  
南畝耕開百畝田, 밭을 경작하고 백묘를 연다.

## 九九

滿園桃李鬪粧新, 온 정원의 도화와 오얏은 장식과 새로움을 다투고,  
粉蝶黃蜂往復頻, 분칠한 나비와 노란 벌들은 끊임없이 왕래하네.  
紫陌東風遊騎遠, 동풍부는 자줏빛 길에 말을 타고 멀리 노니니,

34) 신반(辛盤) : 옛 농력에 따르면 정월 초하룻날 다섯 가지 맛이 나는 매운 채소를 쟁반에 차려놓고 먹는데 迎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淸 惠士奭의 <除夕寫懷(선달 그믐날 감정을 쓰다)> : 辛盤與椒酒 一一親批當 (신반과 산초 술 일일이 친척들에게 딱 맞게 나누어 주네).

35) 金吾란 황제의 호위와 의장을 관장하는 관청으로 漢代에는 執金吾라고 했고 당 이후에는 金吾衛라 했는데 그 업무는 동일하지 않았다. 또한 “금오”는 새 이름으로 친자가 출행할 때 맨 앞에서 선도했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따서 관청 명으로 삼았다고 하며, “금오”는 몽둥이란 의미인데, 몽둥이의 양끝에 금을 입혔다고 하여 漢代에는 執金吾란 명칭을 썼다고 한다.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그 역할이 마치 요즈음 경찰 또는 경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唐 韋述(?~757)의 《西都雜記》에 따르면, “西都京城街衢 有金吾曉暝傳呼, 以禁夜行. 惟正月十五日夜 勅許金吾弛禁前後各一日.”(《說郛》, 권17). 또한 蘇味道(648~705)의 <正月十五日夜>를 보면 “金吾不禁夜 玉漏莫相催”(QTS, 2/2/65, 181b)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칠구>는 정월 대보름의 정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信知人與物皆春,      사람과 사물 모두에게 봄임을 알겠네.

3. 돈황 P.4017의 <詠九九詩>

一九氷須萬葉枯,      一九에 고드름은 모든 나뭇잎을 말리고,  
北天鴻鴈過南湖,      북쪽 하늘엔 철새들이 남쪽 호수를 찾아 날아가네.  
霜結草頭<sup>36)</sup>數<sup>37)</sup>碎玉,      서리는 풀끝에 맺혀 조각난 옥처럼 널려있고,  
露凝條上撒珍珠,      가지위에 얼어붙은 이슬은 진주같이 흩어져 있네.

二九嚴凌<sup>38)</sup>骨寒,      二九에 살벌한 추위는 뼈를 저미는 듯 차가운데,  
探人鄉友覺衣單,      벗을 찾아가는 사람 입은 옷이 홀겁이 구나(?).  
群鳥夜投高樹宿,      못 새들은 밤에 높은 나무에 몸을 맡겨 잠을 자고,  
鯉魚深向水中攢,      잉어는 깊숙이 물 속으로 모여드네.

三九颼颼<sup>39)</sup>寒正交,      삼구, 쉬리릭 한기는 때맞추어 지나가고,  
朔風如<sup>40)</sup>箭雪難消,      화살 같은 삭풍에 눈은 녹기가 힘들 어라.  
南坡<sup>41)</sup>東地周荒<sup>42)</sup>,      남쪽 언덕 동쪽 땅은 황폐한 방죽으로 둘러 싸여,  
往來人士<sup>43)</sup>過水橋,      오고가는 사람들 수로로 지나가네.

- 36) 원권에는 投자로 되어 있지만, 돈황의 사본에서 두 글자는 동음으로 많이 통용한다.
- 37) 원권의 자형은 𠄎리오 3618에 실린 <秋吟一本>의 자형과 유사하다(돈황변문집, 권6, 807쪽).
- 38) 원권에 쓰인 𠄎는 우변 木과 좌변 刀로 이루어진 글자로 보인다. 바로 𠄎자로 보인다. 설문해자에 따르면 𠄎자로 정의한다(段玉裁, 說文解字注, 179쪽).
- 39) 颼颼, 원권에는 搜流로 쓰여 있는데 동음에 따른 가차로 보인다. 두 번째 글자 流는 溜를 대신한 예를 돈황사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스테인 4654에 실린 <순자변>을 보라(변문집, 권2, 129).
- 40) 원권에는 而자이지만 八九에서와 마찬가지로 문맥상 如자로 읽어야 한다. 돈황사본에서 이 두 글자는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스테인 2073에 실린 <려산원공화>에서 수차례 볼 수 있다(변문집, 권2, 188쪽).
- 41) 원권: 波, 동음과 자형에서 기인하는 오자로 보임.
- 42) 원권: 霸, 동음과 자형에서 기인하는 오자 혹은 가차자로 보임.
- 43) 원권: 使, 동음에 의한 士의 가차로 돈황사본에서 흔히 보임.

四九寒風不掩心,      사구에 차가운 바람은 가슴까지 엄습하지 못하고,  
鳥棲猶自選高林.      새들은 나처럼 관목 숲에 등지 트네.  
參沒未知過半夜,      參성은 사라졌지만 자정이 지났는지 모르겠고,  
平朝辰<sup>44)</sup>在中天心.      새벽에 辰성은 하늘 중앙에 있구나.

五九殘冬日稍長,      오구에 겨울은 쇠잔해지고 해는 더욱 길어지니,  
金烏<sup>45)</sup>映漸書堂.      태양은 점차 서당으로 비추네.  
惟報學生須在意,      단지 학생들에게 정신을 집중해야한다고 말하지만,  
每人添誦兩三行.      각자 두 세줄 더 읽을 뿐이네.

六九衣單敢出門,      육구에 홉겹의 옷으로 밖을 나가,  
朝風慶賀得陽<sup>46)</sup>春.      아침 바람에 따뜻한 봄을 맞이하니 기쁘네.  
南岐未有莫稊<sup>47)</sup>動,      남쪽 제방에 냉이와 버드나무 싹은 움직임도 없고,  
[犬來先向北陰存<sup>48)</sup>]49).      개가 달려와 먼저 나아간 북쪽엔

- 44) 원권: 晨, 돈황사본에서 두자는 종종 혼동되어 나타난다. 北平 衣字<sup>33</sup> 號에 실린 <목련변문>(원권에는 제목이 없으나 돈황변문집 편집자들에 의해 불려짐)에 그 예를 볼 수 있다: 姊妹似參晨, 兄弟如火水(돈황변문집, 762쪽). 삼성과 신성은 하나가 나오면 하나가 들어간다고 한다. 그래서 揚雄은 《法言》, 권 2에서 “나는 삼성과 신성이 나란한 것을 보지 못했다(吾不觀參辰之相比也)”고 했다.
- 45) 원권에 따르면 6인이 되는데, 7언절구 형식을 감안할 때 한 글자가 빠진 것으로 본다.
- 46) 원권: 楊, 동음에 의한 가차 또는 자형의 오자.
- 47) 원권에 稊자는 草는 없고 穴자로 덮여있는 데 서법상의 오자로 보이며, 稊자는 원권에 禾변이 없이 동음의 弟자만 보이는 데 동음에 의한 가차이거나 필사자의 오류로 보인다. 이러한 서법은 八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莫稊을 말하는 것으로 냉이로 추정된다.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한잎씩 돋고 그 이후에는 한잎씩 떨어지며 또한 하루가 작은 달에는 마지막 잎이 시들기만 하고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로서 고대인들은 달의 흐름을 알았다고 한다. 稊는 稗(벼과에 속하는 피)를 말하지만 여기에서는 버드나무의 싹[楊之稊]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 48) 원권: 在, 설문해자에 따르면 在를 存으로 설명한다. 여기에서는 운자를 따라 ‘존’으로 교정한다.
- 49) 원권에는 자서에 없는 난해한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 글자를 포함하면 8언이 되는데, 이 9수는 모두 7언의 절구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 글자는 잉여의 글자가 된다. 원권에서 문제의 글자를 보면 오른 쪽 변의 글자가

음기가 남아 있네(?).

七九暮<sup>50</sup>河已<sup>51</sup>半水, 칠구 저녁 강은 이미 반만 얼어있고,  
 鯉魚驚散當<sup>52</sup>須行, 잉어들은 놀라 흩어졌다 다시 줄지어 가네.  
 喜鵲銜柴巢欲壘, 즐거운 까치들은 나무를 물어다 둥지를 짓고,  
 去年秋鴈却來聲, 지난해 가을 기러기 다시 소리 내며 오네.

八九莫稊應<sup>53</sup>日生, 팔구에 냉이와 버드나무 싹은 해를 따라 생겨나고,  
 陽氣而雲遍地青, 양기는 구름같이 푸른 대지를 덮는 구나.  
 鳥向林間播<sup>54</sup>種穀, 숲 속으로 향하는 새들은 모종을 재촉하고,  
 人於南畝已深耕, 남쪽 밭에 사람들은 이미 깊이 밭을 가는 구나.

九九凍高自合興, 구구에 적절한 비가 절로 더해지니,  
 農家在此樂轟轟, 농가엔 이로써 기쁨이 가득하네.<sup>55</sup>  
 樓中透下黃<sup>56</sup>金程<sup>57</sup>, 누대 속으로 황금빛 돌피가 투사되고,  
 平原隴<sup>58</sup>上<sup>59</sup>玉苗生, 평원의 언덕엔 옥처럼 싹들이 자라나네.

卜로도 읽을 수 있지만 잘못된 글자여서 필사자가 글자를 지우거나 빼리는 표시로 볼 수도 있다. 이 잉어의 글자는 뒷 글자 “𪛗”자와 자형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잘 못 써 삭제한 표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50) 원권 : 莫, 두 글자는 통용한다. 예로 <大目乾連冥間救母變文并圖一卷并序> (변문집, 744쪽)을 보라. 한편 원권의 자는 나중 九九에서와 마찬가지로 黃자의 오자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문맥으로 보아 전자가 더 잘 어울린다.
- 51) 원권 : 以, 돈황 사본에서는 두 자를 구분 없이 사용한다. 예를 들자면 스테인 2204에 실린 <동영변문>(변문집 편집자들이 추정된 제목)을 보라 (변문집 권1, 110쪽).
- 52) 원권 : 堂, 동음에 의한 가차로 돈황 사본에서 많이 보인다.
- 53) 원권에는 아래 心변이 누락 되 있어 마치 雁자처럼 보이지만 문맥에 따라서 바로 잡는다.
- 54) 원권 : 崔
- 55) 이 표현은 <大目乾連冥間救母變文>에서도 보인다. : 天堂曉夜樂轟轟 (변문집, 728쪽)
- 56) 원권 : 莫, 자형이 유사하여 비롯된 오자로 보인다.
- 57) 이 자는 자전에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稊(뻬)자를 잘못 쓴 것 같다. 한편 朱駿聲의 說文解字正聲, 解부에 따르면 糶는 稊를 가차로 한다고 한다.
- 58) 원권 : 龍, 동음의 가차자 혹은 자형의 오자.

КСІ

---

59) 원권에는 오른쪽 행과 행 사이에 삽입표시와 함께 작은 글씨로 첨가되어 있다.

이상에서 제 “二九”의 두 번째 구는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지만 그림에 붙은 제시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전체 9수의 칠언절구는 모두 그림을 보면서 지은 시라고 가정해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노래의 형식은 7언 절구의 형식으로 되어있다. 단지 다른 점으로는 비림의 것은 각 九를 따로 제목처럼 놓고 7언을 구성하고 있고, 돈황의 것은 각 九를 7언의 지수에 넣고 있다

한편 이러한 “구구”시가는 절구형식으로 고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楊維禎(1296~1370)의 《東維子文集》에 실린 <衛子剛詩錄序>를 보면 “그의 절구는 구구소한도의 한 편처럼 음절과 詩境이 모두 성당에 지어진 여지가 있다”<sup>60)</sup>고 하는 것을 보아 구구소한의 시가는 절구의 형식으로 지어졌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지어진 지역에 있어서 두 본은 모두 북방의 기후를 노래한 것으로, 남방의 것과는 거리가 멀다. 錢謙益(1585~1664)은 《牧齋有學集》의 한 7언 題詩에 “長安九九消寒夜”<sup>61)</sup>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안과 북경일대에 대체로 유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Ⅲ. 나가면서

冬至로부터 九일씩 셈하여 날씨의 변화를 알아가는 민간 풍습은 그것의 내원이 중국적인지 외래의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宋 이전에 九九의 언급이 없었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본고의 의의가 있다. 검토한 자료상으로 볼 때, 이러한 풍습은 이미 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었으며, 동지에서 시작하는 “구구소한”은 모두 서안의 동북부 지방에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夏至에서 시작하는 구

60) 《四部叢刊·初編·集部·東維子文集》, 권7, <衛子剛詩錄序>: “其絕句如消寒圖一首, 音節興象, 皆造盛唐有餘地”

61) 《四部叢刊·初編·集部·牧齋有學集》, 권13.

구에 관한 속담은 동지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나중에 생겨난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구구소한도>는 연화(年畵)의 한 형태로 보이므로 판본이 해마다 바뀌었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다른 내용의 絶句들이 민간에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위의 둘 뿐이다. 서안의 탁본에는 “구구”의 속담과는 자못 다른 내용을 언급하는 7언 절구가 붙여져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의 또 다른 형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 돈황본 <詠九九詩>를 통하여 우리는 그 연원을 9세기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풍습의 연원에 대한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하며, 벨리오 4017의 <구구시>의 보다 완전한 교정본을 기대해 본다.

### <參考文獻>

- 《全唐詩》(상해: 상해고적출판사), 1986.  
 顧祿, 《清嘉錄》(대북: 대만상무인서관), 1966.  
 謝肇淛(1567~1624), 《五雜俎》, 《續修四庫全書》.  
 楊允孚, 《灤京雜詠》, 《文淵閣四庫全書》.  
 劉若愚(1585~?), 《酌中志》.  
 徐珂(1869~1928), 《清稗類鈔》.  
 劉侗(1594?~1637?)·于奕正, 《帝京景物略》, 《續修四庫全書》729.  
 王重民 등편, 《敦煌變文集》(북경: 인민문학출판사), 1957.  
 Paul Demiéville, 饒宗頤, 《Airs de Touen-houang》(Paris: CNRS), 1971.  
 王樹村 編著, 《中國民間年畫史圖錄》上·下(상해: 인민미술출판사), 1991.  
 王樹村 著, 《中國民間年畫史論集》(천진: 楊柳青畫社出版), 1991.  
 유성준, <薛能詩 試探>, 《중국학연구》제6집, 1991, 1-18.

Wilhelm Grube, Zur Pekinger Volkskunde, Berlin, 1901.

ED. Chavannes, <Les neuf neuvaines de la diminution du froid>, in Bulletin de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Jan-Mars 1904).

### <中文提要>

<九九消寒图>是在中国流传了几百年的风俗。记载这风俗的书不多。只有刘侗的《帝京景物略》中记载得比较详细，文云：“日冬至，画素梅一枝，为瓣八十有一，日染一瓣，瓣尽而九九出，则春深矣，曰<九九消寒图>。”

从冬至数九日推测天气变化的民间风俗，不详其来源是中国还是西方。关于九九的传统理解是宋朝以前没有九九的记载。不过本稿提出了可以反驳传统见解的根据。这就是本文章的意义所在。从资料来看，这种风俗的出现可以追溯到九世纪。从冬至数起的九九消寒似乎都在西安东北地区流行。有关从夏至数起的九九的俗谚似乎其后出现。

另外，九九消寒图可以看作年画的一种形态，可想其版本每年有所变化。这表示不同内容的绝句在民间流行的可能性，可是目前我们只能接触到上记的两种。现在我们可以发现在西安的拓本中与九九俗谚不同内容的七言绝句，还知道画与诗一起流传于后代。敦煌本<咏九九诗>是可谓另一种形态的九九消寒。通过敦煌本<咏九九诗>的分析，还可以把九九风俗的渊源追溯到九世纪中叶。

주제어: 九九消寒圖, 九九詩, 敦煌, 風習, 年畫